

청년기의 기독교 변형화교육에 관한 연구: 용의 무의식 대면과 로더의 변형이론을 중심으로

이규민(장로회신학대학교/교수)*

kmlee@puts.ac.kr

김은주(한세대학교/강사)

pillarkim@daum.net

한글 초록

청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은 만남 및 정체성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만남 및 정체성의 문제는 사실상 어린 시절 자신을 인정해주고 긍정해주는 1차 양육자의 '얼굴'을 갈망하는 본능과도 연결되어 있다. 제임스 로더는 인간의 "얼굴" 추구 본능은 이후 "형식적 조작기"에 이르러 "영원한 얼굴"이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종교적 사고로 연결됨을 역설한다. 이러한 '얼굴' 및 '영원한 얼굴'의 추구는 의미 있는 만남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하려는 실존적, 존재론적 움직임인 것이다. 종교심리학자 칼 융은 현대 사회가 절대 진리인 것처럼 신봉하는 과학적 사고가 미신적 신앙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공헌을 하였지만, 이것이 영혼의 소중한 가치 및 자연과의 일체감을 상실케 하는 역기능도 초래하였음 또한 지적한다. 융은 "상징적 놀이"를 통해 학습자 또는 내담자가 자신의 무의식과 대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을 강조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습자가 무의식의 상처와 왜곡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기를 향해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용의 이러한 "무의식 대면"기법을 자신의 교육이론 속에 비판적으로 전유한 학자가 제임스 로더이다. 로더는 용의 무의식과 '상징적 놀이'를 넘어,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 사이의 대화와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의 내면

* 제1저자: 이규민, 교신저자: 김은주

에 놀라운 변화와 변형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변형화교육’을 주창한 바 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실존적, 존재론적 공허에 빠져 방황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능적, 사회화교육만으로는 이들의 문제와 발달론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발달론적 위기는 “영원한 얼굴”이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체성과 친밀감의 토대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용의 “무의식 대면”과 로더의 “변형의 논리”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때, 청년들의 건강한 자아정체성과 친밀감 형성을 위한 변형화교육이 가능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이론적 성찰뿐 아니라, 기독교 변형화교육을 실행함으로써 얻어진 청년들의 반응과 실제 피드백을 함께 제시한다. 이를 통해 “청년을 위한 기독교 변형화교육”이 실제적 성과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이론임을 입증함으로써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 주제어 》

청년기, 영원한 얼굴, 칼 용, 상징적 놀이, 무의식 대면, 제임스 로더, 변형의 논리, 변형화교육

I. 들어가는 말

인간은 다층적, 다면적, 다차원적 실재 속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간다. 눈앞에 현상적으로 보이는 차원은 정치-사회-경제적 차원이지만 인간은 여타 동물과 구별되는 실존적, 영적 존재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인간의 현상적 삶이 실존적, 영적 토대 위에서 이루어질 때 그러한 삶이 건설하고 바른 방향과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실존적, 영적 차원은 의미 있는 만남과 관계성을 통해 형성된다. 마틴 부버(Martin Buber)의 주장처럼 인간은 “나와 너(Ich und Du)”의 관계성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영원한 너(Eternal Thou)”와의 관계성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Buber, 2004, 58-65). 이러한 영적, 실존적 만남과 관계성은 여타의 만남 및 관계성을 위

한 하나의 존재론적 모판과 토대를 형성해준다.

발달론적 관점에서 볼 때, 만남 및 관계성 추구의 본능은, 출생 이후 부모 또는 일차 양육자의 ‘얼굴’을 향한 갈망에서 시작된다(Spitz, 1965). 이후 ‘형식적 사고기’(formal-operational stage)에 이르면 자신을 긍정해주는 ‘영원한 얼굴’(the Eternal Face)에 대한 갈망이 나타난다(Loder, 1998, 104-106). 종교 여하를 막론하고 자기 존재의 근원에 대한 만남, 즉 절대적 존재와의 만남에 대한 갈망은 인간 실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Kierkegaard, 2008, 15). 청년기의 대표적 발달과업이 ‘친밀감’(intimacy) 형성임을 생각할 때, 청년기를 위한 기독교교육에 있어서 ‘만남’ 및 ‘관계성’에 대한 성찰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Erikson, 2014, 322).

청년기는 미성년에서 성년으로의 진입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따라서 청년기에는 가정에서 사회로의 진출을 향한 사회화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된다. 이처럼 사회화교육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사회화교육만으로는 청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을 해결할 수 없다. 출생 이후 영유아-유치-아동기의 모든 긍정적, 부정적 경험을 형식적 조작과 추상적 사고를 통해 해석, 재해석하고 남은 삶의 방향과 목표를 정립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동안의 많은 상처와 왜곡, 트라우마가 청년기의 정체성과 친밀감 형성이라는 중요한 발달과업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청년기까지의 상처, 왜곡, 트라우마는 의식이 아닌 무의식의 층으로 내려가서 청년의 정체성 형성과 친밀감 형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와 위협에 대처하는 교육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청년들의 실존적, 존재적 문제를 외면하는 교육이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년기의 무의식을 대면하고 그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미해결 과제들을 융(Carl Jung)의 “무의식 대면(unconscious confrontation)”과 로더(James Loder)의 “변형의 논리(transformational logic)”를 활용함으로써 청년기의 정체성과 친밀감 형성이라는 중요한 발달과업을 이룰 수 있는 청년기를 위한 변형화교육의 가능성을 성찰해보고자 한다.

II. 청년기 정의와 특성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청년기’는 소년에서 벗어나 완전한 성인으로 성장해나가는 단계를 의미한다. 청년기를 가리키는 ‘young adulthood’은 ‘아직은 완숙하지 않은 신생 성인’이란 의미를 그 속에 가지고 있다. 이는 청년기가 급격한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는 시가라는 뜻을 함께 지니는 것이다(장휘숙, 2000, 17). 우리나라는 만 19세 이상을 법률상의 성인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성인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기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갈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상황에서 20대 초중반의 청년들은 대부분 아직은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춘재, 1988, 5).

본 연구에서는 대략 17, 18세에서 30세 전후까지 아직은 부모로부터 재정적 독립이나 분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를 ‘청년기’로 지칭하고자 한다. 청년기를 구체적으로 청년초기, 청년중기, 청년후기로 세분해볼 수 있다. 청년초기가 사춘기에 해당한다면 청년중기는 대학생 또는 직장 초년생, 청년후기는 결혼 적령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를 좀더 넓고 포괄적 개념으로 다룸으로써 흔히 말하는 “청소년기 및 청년기”를 함께 묶는 개념으로 다루고자 한다. 에릭슨(Erik Erikson)의 생애 주기 이론 스케일 상으로는 ‘5단계 정체성 대 역할 혼란’인 청소년기와 ‘6단계 친밀감 대 고립감’인 성인 전기를 함께 포괄하는 시기인 것이다(Miller, 1983, 157).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국사회에서의 청소년기와 청년기는 단순히 나이로 구획 짓기 어려울 만큼 상호 연결되어 있고, 물리적 연령 보다는 정신적 연령의 개인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포괄적 개념의 “청년기를 위한 기독교교육”에 대해 성찰하고자 한다.

1. 인지적 특성

청년기 인지적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형식적’ 조작능력의 획득이다. 이 같은 변화는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타인에게 언어나 행동으로의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장휘숙, 2000, 180). 여기에서 말하는 ‘형식적’ 조작능력은 첫째, 구체적 사물을 넘어 추론된 실재를 인지하는 능력; 둘째, 자아 중심성을 벗어나 전체를 지각할 수 있는 능력; 셋째,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현실 속에서 분석 및 조작을 수행하는 능력; 넷째, 가역적 사고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강희천, 1991, 276-277). 청년기가 되면 ‘현실과 가능성’ 사이에 들어있는 모순과 차이를 구분하고, 경험적이고 귀납적인 논리를 벗어나 가설을 바탕으로 논리적 전개를 펼쳐가는 연역적 사고 및 추리 능력을 갖추게 된다.

2. 심리적 특성

청년기의 의식 변화는 이전까지의 인식과는 현격히 다른 새로운 세계관, 가치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심한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Erikson, 2017, 219-322). 이러한 혼란은 신체적, 생리적 변화에 기인한 것도 있지만, 부모 형제, 친구, 주위 사람들 사이에 경험되는 심리적 갈등으로부터 생겨난다. 청년기의 ‘이상적 자아’(ideal self)는 ‘현실적 자아’(realistic self)와 상당한 갭을 보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혼란과 괴리감이 증폭된다(강희천, 1991, 272).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단계에 있는 청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또래 그룹과의 친밀감 형성과정 속에서 찾아 나간다. 이 때에 건강한 정체성이나 친밀감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일종의 정체감 혼미와 고립과 소외와 같은 문제에 빠지게 된다(Erikson, 2017, 322-324).

3. 사회적 특성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건강한 자아감과 자

기 이해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자아의식 및 행동 양식의 형성 과정을 ‘사회화’(socialization)라고 부른다. 사회화는 전 생애를 통해 이루어지며 “외현화-객관화-내면화”를 통해 연속적,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형성해나간다. ‘외현화’(externalization)는 타인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와 함께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집단의 기대와 바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객관화’(objectification)는 법이나 규범 같은 외적 현실에 스스로를 적응시킴으로써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한편, ‘내면화’(internalization)는 객관화된 자아상, 가치체계, 세계관 등이 자기 자신에게 재투영되어 외부 세계 및 현실 세계에 적응된 내면을 형성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Berger & Lukmann, 1966, 52-129).

사회화에는 일차적 사회화와 이차적 사회화가 있다. 일차적 사회화는 주로 부모형제와 관계 속에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차적 사회화는 가정을 넘어 학교, 제도, 사회 속에서 객관적 현실세계의 제도적 특성을 재인식하면서 적응해나가는 과정이다(강희천, 1991, 287-188). 청년기에 나타나는 정서적, 심리적 갈등은 상당 부분 자신의 주된 세계가 가정에서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게 된다.

4. 신앙적 특성

제임스 파울러(James Fowler)는 신학과 심리학의 통찰을 통합함으로써 신앙 발달 단계를 제시하는 업적을 이루었다(장휘숙, 2000, 259). 청년기는 파울러의 신앙 단계 중 3단계를 거쳐 4단계적 특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Fowler, 1996, 43-44). 그러나 아직 13-18세의 청년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상적인 신앙적 삶을 인식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보여주는 세계관이나 권위에 대한 인식은 관습적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즉 아직 관습적 수준에 머무는 신앙을 자신의 것으로 동일시하는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다(Fowler, 1981, 172-173). 그러나 만 18세가 지나게 되면 점차 파울러

가 제시한 ‘개별적-성찰적’(individuated-reflective) 단계의 특성이 나타난다. 일부 청년들은 개별적인 신앙관을 지니기 위해 “이것이나 저것이나 (either-or)”의 명쾌한 구분을 시도한다. 이와 같은 시도는 극단적으로 한쪽 입장에서 다른 쪽을 비판하는 성향을 보인다. 신앙의 4단계는 양극적 특성이 특수와 보편, 절대와 상대, 주관과 객관 사이의 긴장 관계, 혹은 둘 중 하나만을 택하는 ‘상대주의’ 혹은 ‘절대주의’에 빠져들 위험이 있다(강희천, 1991, 283). 청년기를 지나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양극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그 극단성과 함께 역설을 수용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5. 영적 특성

로더는 에릭슨의 주기 이론이 가진 통찰을 수용하여 ‘인간 영의 발달’을 8단계로 제시한다. 인간 영의 발달은 인간의 내재적 차원에 속하는 심리사회적 발달을 “아래로부터의 접근”으로, 인간의 초월적 차원에 속하는 영의 발달을 “위로부터의 접근”으로 함께 포괄해낸다(Loder, 1998, 13). 로더는 학제간 연구를 기반으로 인간 존재의 ‘유한성’과 ‘무한성’을 함께 고찰하고, 질적 변증법을 통해 인문사회과학과 신학의 학제간 연구를 시도한다.

로더는 ‘헬렌의 사례’를 통해 인간을 영(Spirit, Pneuma), 정신(Soul, Psyche), 육체(Body, Soma)라는 세 차원의 유기적 통합체로 바라본다. 하나님의 영과 대면한 인간의 영은 발달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핍, 왜곡,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된다(Loder, 1998, 46-77). 로더는 청년기를 그동안 눌러있던 인간 영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해방되는 시기로 본다.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 밀려 나오듯, 청년의 시기는 자아정체성과 친밀감 형성을 향한 영적 사투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것이다(Loder, 1998, 105). 이처럼 인간 영의 특성은 출생에서부터 시작하여 생의 모든 단계를 거쳐 영원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자 하는 인간 고유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이러한 영적 추구는 자신의 삶을 보다 넓게, 그리고 더 높게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삶을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III. 청년기의 기독교 변형화교육을 위한 성찰: 발달 축의 재정의

앞에 진술된 인간의 영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간발달을 위한 축이 재정의될 필요가 있음을 로더는 역설한다. 인간발달 축의 재구성은 로더가 주장한 “위로부터 오는 변형”의 체험(Loder, 1989)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인간 발달의 궤적 속에 그리스도의 모형을 담고 자아가 변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Loder, 2006, 267-325).

1. 자아 정체성 및 인간 발달 축의 재정의

다섯 가지 인간 발달 축의 주제는 청년기 사회화의 중요 주제들이며 로더는 이에 대한 기독교적 재해석과 재정의를 시도한다. 청년기가 되면 자아의 표면 밑에 있었던 허무, 유기, 우주적 고독 등이 표면 위로 서서히 등장하게 된다.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열리게 되면, 자아 이면의 부정적인 면, 비양심, 소외에 대한 두려움, 열등감 등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재구성할 수 있게 된다. 청년기의 정체성 정립을 위한 다섯 가지 축은 다음과 같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재정의될 필요가 있다(Loder, 2006, 305-312).

첫째, ‘공간 및 시간’ 개념의 재정의이다. 공간은 아기가 엄마의 뱃속이 좁아 세상을 향해 나오는 것과 같이 청년기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가족의 공간을 벗어나 사회화를 향해 나아간다. 인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공간인 하나님 나라 확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시간의 재정의에 대해 살펴보자. 청년기가 되면 객관적 시간과 주관적 시간의 개념

을 이해하게 된다. 행복한 순간이 영원히 지속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과거의 트라우마는 무의식 속에 숨어 들어가거나 과거의 시간에 고착될 수 있다. 해결되지 못한 과거의 시간이 축적될 때 상호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병리적 모습이 생겨난다. 이러한 시간 개념은 인간 영의 통찰을 향한 각성이 절정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변형되는 잠재성을 얻게 된다. 이러한 변형의 역동성은 크로노스(chronos)가 아닌 카이로스(kairos)의 시간 속에서 일어난다.

둘째, ‘이데올로기’의 재정의이다. 청년기는 형식적 조작이 가능하게 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새롭게 세계관을 형성하고 자아정체성을 발견하는 시기이다. 이 과정은 “우주적 외로움(cosmic loneliness)”의 극복을 향한 노력과 연결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총성’이라는 미덕이 형성된다. 청년기의 중요 주제로 대두된 이데올로기, 즉 자신의 세계를 구성하기 위한 기본 세계관은 그리스도애의 헌신을 통해 형성된다. 그리스도의 임재는 청년으로 하여금 근본 신뢰의 재구성을 가능케 하고, 죽음을 넘어선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역동화 시켜준다.

셋째, ‘권위’의 재정의이다. 청년기는 자신이 이미 성인이 되었다고 느끼며 여타 권위적 인물과 대등한 관계 설정을 하고 싶어 한다. 청년기의 이러한 자각은 원초적으로 걸음마기에 대두되었던 힘의 조절 및 오이디푸스기의 초자아 형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던 이러한 과정은 청년기가 되어 부모의 권위 대신에 자기 또래그룹과의 동질감을 느끼며 자신만의 도덕률, 즉 성인으로서의 초자아를 확립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난다. 지나치게 억압적이고 독재적인 환경에 놓인 청년은 자신을 지배자와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다. 반면, 올바른 권위는 인도자와 추종자의 유연한 역할분담 속에서 책임감과 함께 융통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가장 이상적인 기독교적 권위는 삼위일체적 페리코레스시스 질서 속에서 재구성된다. 삼위일체적 페리코레스시스는 위압적이거나 억압적이지 않으며 서로를 세워주고 보완해주면서도 성숙한 질서 속에서 ‘공유된 권

위'(shared authority)의 모습을 보여준다.

넷째, '사랑'의 재정의이다. 외로움은 거의 죽음과 같은 우울한 정서를 지니게 된다. 공허의 감정은 청년기에 이르러 보다 선명하게 의식화된다. 청년은 이데올로기의 탐색과 함께 자신을 긍정해주는 '얼굴'을 추구한다. 청년은 자기 가족에게 이전과는 다른 분리와 단절감을 느끼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온전한 일치를 느끼기 어렵기에 자신과 온전히 소통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을 갈망한다. 청년기의 사랑은 단순히 육체적 욕망이 아닌 서로의 특정성을 수용할 수 있는 대상을 필요로 한다. 인간 영이 재구성될 수 있으려면 사춘기적 성욕이 보다 성숙하게 승화된 합일의 관점이 필요하다. 사춘기의 육체적 성욕은 참된 영적 친밀감을 향한 통로로 재정의될 필요가 있다. 승화된 존재적, 영적 친밀감은 참된 해방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일'에 대한 재정의이다. 로더는 미국의 세속사회가 추구하는 '성취지향' 혹은 '성취중독'의 문제점과 파괴성을 지적한다(Loder, 1998, 223-227). 많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청년들이 가진 실존적, 존재적 문제와 고민의 문제는 간과한 채 학업, 진로, 사회에서의 성취와 성공만을 추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물론 성취와 성공은 사회와 역사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성취중독, 성공중독과 같은 중독성은 개인, 가정, 사회를 발전시키기보다는 파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병리적 파괴에서 벗어나려면, '일'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일'은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와 섭리를 이 땅에 구현해나가는 통로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일'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나가기 위한 일종의 '소명'(vocation)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인간 존재의 진정한 가치 구현은 단순히 '일'의 차원을 넘어 소명감 및 '소명'의 구현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Loder, 2006, 267-325).

2. 친밀감 형성을 위한 관계성의 재정의

자신의 삶을 행복하고 만족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청년들은 일과 함께 사랑을 균형 있게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프로이트가 삶의 원동력은 ‘사랑과 일’(lieben und arbeiten)로부터 오는 것임을 역설한 것과 상통한다 (Erikson, 2014, 324). 청년기에는 자칫 친밀감 속에서 상대에게 함몰되고 정체성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 이상적인 이성과의 친밀한 관계는 건강한 상호성 속에서 서로의 정체감을 잃지 않고 유지해나가야 한다. 다니엘 레빈슨(Daniel Levinson)은 이 시기를 “꿈을 나누는 시기”로 묘사한다. 풍성한 관계는 서로의 내면 깊숙한 곳의 감정을 모으고 꿈의 깊이와 힘을 현실적인 것으로 이끌어 주는 일종의 멘토링과 같다. 이러한 균형 잡힌 친밀감,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친밀감은 ‘언약’(covenant)과도 같은 것이다(Loder, 2006, 337). 참된 친밀감은 에로스에서 멈추지 않고 아가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언약에 기초한 친밀감은 인간 영으로 하여금 ‘우주적 고독’을 넘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친밀감으로 인도한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임재에 인간의 영이 놓여지게 될 때 비로소 사랑의 위협이 되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진정한 사랑과 친밀감의 모델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간은 그 생명과 기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필요와 본질적 차원의 궁극적 모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페리코레스시스적 관계성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Loder, 2006, 331-348).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방식과 사역방식에 기초한 인간 개인 및 공동체의 삶은 곧 코이노니아적 삶의 형태를 띠게 된다.

IV. 용의 무의식 대면 기법과 기독교 변형화교육

1. 용의 무의식 대면과 종교체험의 심리적 해석

칼 융은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이며 20세기 최고의 심리학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힌다. 그의 이론은 인간의 성숙과 성장에서 치유의 영역까지 종교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답을 줄 수 있는 학자이다(이규민, 2015, 139). 1913년 38세의 융은 병원의 의사요 취리히 대학의 강사였다. 그는 내면의 압박, 외로움, 공중에 방향을 잃고 떠 있는 것처럼 느껴서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를 스스로 인식시켜야만 했다. 이를 위해 융은 자신의 유년 시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융은 유년 시절의 놀이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무의식과 대면하였다(Jung, 1961, 174). 놀이를 통해 유년 시절 신경증적 부모님 밑에서 외롭게 자라던 자신을 발견한 융은 자신의 무의식과 대면하는 과정(unconscious confrontation process)을 통해 환상과 꿈들이 풀려나갔다. 융은 '상징적 놀이'(symbolic play)를 통해 자신의 무의식과 대면하고자 노력하였고, 참된 자기가 되어갈 수 있도록 '개성화'(individuation)과정을 진행했다(Schultz, 2009, 141-143).

융은 집단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원형(archetype)과의 만남이 인간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종교체험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이 심리적 역동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인간의 집단 무의식은 인간 의식이 가진 힘을 넘어서는 강력한 심리적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이다(Jung, 1971, 23).

종교에서 나타나는 체험을 심리적으로 접근해 보면 집단 무의식이 의식화되는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 원형과의 만남은 기독교의 경우에는 하나님 형상으로 피조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궁극적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은 기독교가 가진 상징인 기도, 말씀, 성례, 묵상, 영성수련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인간의 의식이 집단 무의식과 결합 될 때 온전성의 회복이 이루어진다(Jung, 1958, 273). 종교의 형태와 내용이 집단 무의식의 원형들에 근접해갈수록 종교의식은 점차 성숙해지게 된다.

2. 용의 무의식 대면과 로더의 창의적 전유

종교적 체험은 그 특성상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Fowler & Loder, 1982, 133-135). 그러나 용은 전 시대에 걸친 인류 경험인 집단 무의식을 강조하며 광범위한 무의식의 본질을 설명하였다. 현대 과학적 사고의 발달이 미신적 신앙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영혼의 가치 및 자연과의 일체감을 잃어버리고 과거와의 영적 결합을 잃어버렸음을 용은 비판한다. 용은 이와 같은 의식의 분열과 해체, 인간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는 위기의 극복은 무의식과의 접촉을 통해 가능함을 강조하였다(Schultz, 2009, 141-143). 용은 놀이를 포함한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서 개인의 무의식과 대면하고, 자신을 재해석하고 자기답게 개별화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정신적 불안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Jung, 1961, 174).

그러나 로더는 용의 막연한 ‘상징적 놀이’를 넘어, 기독교 전통과 자원의 토대 위에서 변형화 교육과 상담을 통해 한 청년 ‘헬렌’의 삶에 보다 의미 있는 근원적 변형이 일어나도록 안내하였다. 헬렌은 프린스턴대학교 박사과정생으로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 나머지 같은 클래스의 남학생을 죽이려는 극심한 공격성을 표출하였다. 헬렌의 이러한 분노조절장애의 기저에는 어머니와의 심각한 불화 및 관계의 왜곡이 자리 잡고 있었다. 로더는 그의 변형이론에 기초해서 헬렌의 아픈 과거의 기억에 그리스도의 현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이를 통해 헬렌의 학업과 삶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그녀의 무의식이 그리스도의 현존에 의해 재구성될 수 있게 된 것이다(Loder, 1998, 46-54).

헬렌은 유산된 오빠를 대체하는 존재로서 남성적 삶을 살아가도록 요청 받았다. 그리스도는 왜곡된 헬렌의 과거 경험에 찾아와 “이제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신 후 헬렌은 어머니의 기대와 요구에 의한 남성과의 과도한 경쟁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도록 치유와 해방을 경험하였다. 그녀는

단지 어머니의 자녀로 머물기보다는 하나님의 소중한 딸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었다. 헬렌은 자신의 여성성에 대한 감사와 수용의 표시로서 핑크빛 정장과 하이힐을 신고 로더 앞에 나타나게 것이다(Loder, 2006, 71-109).

로더는 융이 말하는 ‘원형’(archetype)의 모호성을 넘어 전 인류뿐 아니라 한 인간 실존의 ‘원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직면하는 과정을 통해 헬렌의 트라우마 치유와 함께 새로운 삶이 시작되도록 안내와 교육을 제공해주었다. 로더는 그의 변형이론을 통해 헬렌의 무의식과 영이 그 근원적 토대가 되는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 치유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었던 것이다(Loder, 1998, 68-70).

3. 무의식의 대면 과정과 변형의 논리

원형과의 만남을 통해 무의식을 의식화시키는 “무의식 대면 기법”을 기독교 전통과 자원의 토대 위에서 기독교교육을 위해 창의적으로 전유한 제임스 로더는 특유의 “변형의 논리(transformational logic)”를 수립하게 되었다. “변형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스텝에 걸쳐 이루어진다. 1) 갈등의 단계, 2) 해결을 위한 탐색 및 휴지의 단계, 3) 통찰을 통한 재구조화 단계, 4) 억압된 에너지의 방출 단계, 5) 이해 및 검증의 단계(Loder, 2001, 166-201).

제임스 로더의 변형의 논리와 역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자가 직접 가르쳤던 한 청년의 사례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이 청년은 17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심각한 무력감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때 나는 밤에 꿈을 꾸었다. 어머니께서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시는 꿈이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꿈 내용을 자세히 말하면 충격적이다. 꿈에서 깨어 눈을 떴는데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계속 ‘죽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흔히 말하는 자살 충동이 무엇인지 그때 처음 느꼈다. (남자 청년 1의 축어록)

이 청년의 고통은 자신 안에 남아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의 죽음과 연결됨으로써,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무력감에 휩싸인 나머지 삶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꿈의 빈도는 더 잦아졌고 그로 인한 피해는 점점 더 심하게 나타났다.

연구자는 로더의 “영의 논리(The Logic of the Spirit)”와 “변형의 논리” 이론에 근거하여, 이 청년이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긍정해주는 “영원한 열굴”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고 내면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용의 “무의식 대면 기법”을 통해 청년의 무의식 속에 들어있던 ‘죽음의 두려움’을 자신의 의식 표면 위로 떠올릴 수 있게 된 후부터 점점 꿈의 빈도수가 줄어들게 되었다. 이따금 ‘죽음’에 관한 꿈이 나타날 때마다, 자신을 지켜주고 긍정해주는 어머니는 계시지 않지만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한 영원한 보호자임을 굳게 믿으며 두려움과 대면하고자 결심하였다. 용이 인형놀이를 통해 자기 어린 시절의 무의식과 만나게 하는 ‘중간대상’ 역할을 했다면, 이 청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자가 “영원한 중간대상(the eternal transitional object)”이 되어주신 것이다. 이 청년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변형의 경험을 하게 되었고, 향후 다른 사람의 고통과 두려움을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the wounded healer)”로 자아상을 재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김은주, 2018, 126-127).

이 청년의 경험을 ‘변형의 논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1) 갈등의 단계: 17세 되던 해 어머니의 갑작스런 죽음이 끊임없이 꿈으로 재현되었다. 그럴 때마다 극심한 공포감과 함께 자살 충동으로 인해 정

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다.

2) 해결을 위한 탐색 및 휴지의 단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어느 것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3) 통찰을 통한 재구조화 단계: “영의 논리”에 대한 공부와 교육을 통해 어머니의 갑작스런 죽음이 자신의 죽음에 대한 공포와 연결되었음을 자각하게 되었다. 또한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지켜주시는 “영원한 얼굴”로 현존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이러한 말씀의 증언과 약속을 굳게 붙들고 꿈의 문제와 자살 충동의 문제에 직면하고자 결단하게 되었다.

4) 억압된 에너지의 방출 단계: “영원한 얼굴”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결단을 통해 그의 억압되었던 자유와 생명 에너지가 방출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응집되었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겨나게 되었다.

5) 이해 및 검증 단계: 무의식 속에 들어있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꿈과 연결되어 자살충동에 시달리던 청년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꿈의 빈도가 차차 줄어들더니 이젠 공포스러운 꿈을 꾸지 않게 되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청년은 이제 자신과 같은 공포와 두려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경험과 배움을 나누어주며 살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이는 “영의 논리”와 “변형의 논리”를 통해 학습자의 삶 속에 의미 있는 변형이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 치유, 해방,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

V. 변형화된 청년기 특성의 사례

기독교교육 실천을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객관화된 지식과 사회화를 위한 교육의 내용을 학생들은 흥미를 보이며 잘 따라오곤 한다. 하지만 그들 과거의 상처나 내면 문제로 인한 갈등은 마치 개별학습처럼 개별적 대화와 면담이 필요했다. 기독교교육의 현장에선 어김없이 대중적 교육과 개인적 또는 소그룹 면담이 동시에 일어났고 그리스도의 임재에 의한 변형이 절실히 요청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종교심리학” 수업을 통해 용의 무의식 대면 기법과 로더의 변형화에 관한 강의와 함께 이러한 문헌들을 심도 있게 읽고 자신의 삶에 진지하게 적용해보도록 촉구하게 되었다.

한 학기 동안 강의, 워크숍, 복리뷰, 발표 등의 다양한 학습활동을 진행하고 학기를 마치는 시점에서, 육십여 명의 학생들과 이번 학기의 수업 경험이 자신의 학업과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가를 진솔하게 나누게 되었다. 이 학생들의 다양한 나눔과 이야기 중에서, 앞에 전술한 청년기 발달의 다섯 가지 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증언들이 나타났기에 실제 사례로 소개하고자 한다. 학문적 연구를 위해 그들의 사례를 익명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과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

1. 인지적 특성: 형식적 사고의 출현 및 궁극적 대상과의 연결

청년기가 되면 형식적 사고능력의 출현과 함께 지난날 추구해 왔던 ‘영원히 떠나지 않는 얼굴’을 궁극적 대상과 연결할 수 있는 형식적 사고, 의미추구, 상상적 능력을 갖추게 된다. 아동기와 달리 형식적 사고는 자기 정체성과 친밀성, 그리고 자기 존재의 근원에 대한 탐구를 가능케 해주기 때문이다(Loder, 1998, 139-145). ‘여자 청년 1의 사례’는 형식적 사고 발달과 함께 궁극적 대상과의 관계성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학교에 오겠다고 마음먹기 전, 나의 꿈은 지구과학 교사였다. 우주의 탄생, 지구의 역사, 달의 공전, 별의 운동 등 천체에 관련된 것을 배울 때 가장 짜릿하고, 신기하고 새로웠다. 지구, 달, 별, 우주에 대해 가르치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라고 말해야지’하고 복음을 전할 꿈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속에서 우리는 아주 ‘작음’을 알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사라질 것 같이 작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거대한 우주조차 더 크신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더 이상 우주가 주는 공포가 무섭지 않다. 그의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 참 평안을 얻는다. 이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다.

(여자 청년 1의 증언)

2. 심리적 특성: 사랑과 일의 재구성

청년기에 나타나는 심리적 특성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경험은 친밀감과 독립감 사이에서의 갈등이다(Erikson, 2014, 322-326). 사랑을 힘들게 하는 위협 요소는 방어심리 및 보상심리이다. 자신이 상처받지 않으려는 방어심리와 자신이 준 만큼 받고자 하는 보상심리는 스스로를 고립시킨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라고 성경은 증언한다(요한일서 4:18).

인간의 유한성의 관점에서 볼 때, 두려움은 비존재의 불안에서 기인한다. 곁을마기에 유아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안정감을 얻는 도구로서 중간대상에 집착하듯(Kegan, 1982), 인간의 비존재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비존재의 불안을 가진 인간에게 참된 구원과 생명이라는 대안과 해결을 향한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Loder, 2006, 188-190).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의 땅을 향한 안내자 역할 뿐 아니라, 대상관계 속에서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간대상의 역할을 하게 된다. ‘여자 청년 2의 사

레'에서 그 예를 발견할 수 있다.

나는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사랑을 찾으려고 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오직 내 편이 되어주며 나의 아픈 이야기들을 쏟아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만큼 나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해주고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완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세우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의 우선순위는 계속 바뀌었고 남자친구를 많이 의지하게 됐다. 결국, 자주 싸우게 되면서 나는 남자친구와 이별하였다. 그것이 나에게 너무 충격이었던 터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타격을 입는 나를 보게 되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알게 된 기독교 서적을 읽고 필사하며 무기력하고 힘들었던 나의 삶에서 비로소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다. 로더의 말처럼, 가장 강력한 친밀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짐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나는 직전의 연애를 통해 나의 잘못된 갈망과 집착을 깨닫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정한 하나님 사랑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이제 나는 새로운 만남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전처럼 남자친구에게 사랑을 구걸하거나 집착하지 않으려 한다. 남자친구의 사랑이 중요하긴 해도 내 인생이 그 사랑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님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자 청년 2의 증언)

프로이드의 이론에 의하면 인간을 움직이는 공통적인 추동력은 “일과 사랑(lieben und arbeiten)”이라 할 수 있다(Erikson, 2014, 342). 이 둘 중에만족으로 함몰될 때 중독 또는 불건강한 왜곡이 나타난다. 청년기의 발달과업을 보더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상대방과의 건강한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은 중요하다(Loder, 2006, 329). 이런 의미에서 성숙한 사랑은 자신의 일과 정체성의 토대를 잃지 않으면서 서로에 대한 친밀감을 형

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두 축 사이의 긴장과 상호보완은 로더가 말하는 사랑의 왜곡, 즉 “자아 흡수(ego-absorption)” 또는 “자아 고립(ego-isolation)”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아래의 “여자 청년 3”은 예수님에 대한 통찰 위에서 자기 삶의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기 시작했다.

청년기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았다. 예수님은 건강한 청년기의 모델을 보여주시는 것 같다. 예수님은 프로이드가 말한 일과 사랑의 공존을 완벽히 실천하신 분이시다. 처음에는 성경에 예수님의 이성적인 사랑을 찾을 수 없어서 일에만 집중하신 분으로 오해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셨고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일을 완수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던 분이였다. (여자 청년 3의 증언)

3. 사회적 특성: 권위의 재구성

청년기의 사회화 과정은 가정에서 학교와 사회로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의 상호성과 관계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주로 부모의 권위에 의존했던 소년기를 지나 선배, 교사, 목회자 등을 통해 확장된 권위를 경험한다. 청년기는 초기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인 대 성인의 상호관계성 속에서 일방성이 아닌 양방향성의 대화와 교제에 대한 욕구가 생겨난다. 이때 억압적이거나 독재적인 권위가 아닌 인격적이고 상호 존중이 가능한 권위의 경험이 청년으로 하여금 참된 성장과 성숙을 가능케 해준다. “남자 청년 2의 사례”가 이러한 성장과 성숙을 향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나는 초등학교 때 N국에 이민 갔다. 처음엔 외국에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전혀 다른 환경으로 문화 충격을 받았다. 나는 가정의 상황에 따라 기숙사로 보내졌고 수도를 틀면 녹물이 나오는 열악한 환경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니 자연스럽게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다. 부모님의 신앙으로 교회를 다녔고 의미 없이 자리에 앉아 있다 나오기를 반복했다. 고등부로 올라가며 한 선생님을 만나 나의 생활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 다른 선생님들과 달리 나와 대화하기 원했다. 나는 부담스럽고 나를 내버려 두라고 소리쳤지만, 선생님은 매번 따뜻하게 인사해 주고 사소한 말을 해주며 반겨 주셨다. 시간이 지나 나는 선생님과 친한 사이가 되었고 내가 겪은 일들과 나의 생활을 전부 말해 주었다. 선생님은 나에게 수련회를 권해 주셨다. 찬양을 부르고,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 눈물이 흘렀고 눈물이 멈추질 않아 구석에서 평평운 기억이 있다. (남자 청년 2의 증언)

인격적이고 상호 존중과 배려가 이루어지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은 “남자 청년 2”에게 있어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한계와 연약성을 지니고 있기에 온전하고 참된 권위의 모델은 성경의 증언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과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 보여준 참된 스승의 모습은 권위 개념을 상하와 수직적 경직성이 아닌 상호관계성에 기초한 열린 권위의 모습으로 새롭게 정의된다(Loder, 1998, 213-215).

4. 신앙적 특성: 이데올로기의 재구성

청년기가 되면 자신의 상식과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성경을 지루해하거나 소소갈일이 여기는 경향이 있다. 청년기는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회의가 생기기 시작한다. 청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세우고 이끌어갈 인생철학, 곧 자신의 인생 이데올

로기를 정립하는 것이다. 신앙이란 “궁극적 관심”이요(Brown, 1965, 75-77), “신뢰와 힘의 궁극적 원천”이기 때문에 신앙 그 자체가 청년에게는 핵심 이데올로기가 될 수밖에 없다. 자기 인생을 이끌어갈 핵심 이데올로기로서의 신앙에 대한 개별적, 비판적 성찰이 시작되는 시기가 바로 청년기이다. 따라서 청년기가 되면 지금까지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던 삶의 양식과 신앙을 개별적 성찰을 거쳐 자신만의 신앙으로 재구성하게 되는 것이다(Fowler, 2002, 292-295). “남자 청년 3의 사례”가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 준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교회와 부모님께 배우던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 이야기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부모님의 신앙체험 이야기를 생각하며 의심을 부정하다가도 ‘다른 이들이 믿는 신과 나의 하나님이 다를 것이 없는 가상의 존재이진 않을까?’, ‘나의 신앙이 진짜인가?’라는 의심이 스치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항상 내 곁에 머물던 의심이 사라지고 새로운 확신을 얻게 되었다. 세상에 나 혼자뿐인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며 그러한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 순간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었다. (남자 청년 3의 사례)

이러한 신앙의 개별화 과정을 통해 청년기는 자신의 신앙과 이데올로기의 축을 새롭게 형성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참여와 실천의 삶으로 재구성해나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5. 영적 특성: 공간과 시간의 재구성

청년 초기가 되면 형식적 사고가 가능해지면서 내면 깊은 곳에 있던 허무감, 유희감, 우주적 고독감이 표면으로 나타나게 된다. 생명의 궁극적 원

천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아의 경계가 열리게 되고 자아구조가 새로운 발달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Loder, 2006, 270-323). 이와 같은 체험은 지금까지 경험된 물리적 시간 이상으로 질적 시간,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삶이 재구성되는 기회를 맞게 된다. 아래 “남자 청년 4의 사례”가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선수 생활을 해왔고, 그 생활은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이어졌다. 중학교 3학년 중요한 대회에서 큰 부상을 입었다. 수술을 받고 재활을 마쳤지만, 이전과 같지 않았다. 결국, 코치님과 부모님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선수 생활을 마쳤다. 그 이후 깊은 슬럼프가 왔다. 내가 선수였던 시절 억누르던 것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무언가를 목표로 삼고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포기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삶의 원동력이었던 인생의 목표가 사라지니 왜 살아야 하는지까지 생각했다. 그리고 극단적인 생각을 실행하기 위해 다리 위까지 갔다.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무서웠고 내 주변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고 2 올라가기 전 겨울 청소년 수련회를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믿지도 않았다. 그리고 또 한 차례 여름 수련회가 다가왔다. 겨울과 다르지 않다고 느꼈던 마지막 날 나에게 큰 변화가 왔다. 나의 모든 과거, 내가 좋았던 순간들, 내가 실패했던 순간들, 내가 힘들고 좌절했던 순간들, 극단적인 생각과 상황들 모두 그때 하나님께선 내 곁에서 나를 부르고 계셨고 눈물로 나를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렇게 멍해진 상태로 수련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청소년부 전도사님의 권유로 새벽 예배를 시작했다. 일주일 동안 수련회에서 받았던 그 말씀만 생각나 울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 지난 힘들었던 과거를 기도하며 돌아보니 하나님께선 나를 성장시켰고 내 모든 것을 바꾸셨다. (남자 청년 4의 증언)

VI. 나가는 말

지금까지 청년기의 정의와 특성을 먼저 고찰한 후, 청년기의 발달론적 다섯 축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독교 변형화 교육을 위해 이러한 다섯 축이 재정의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청년기가 되면 형식적 조작적 사고가 가능하게 되면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심각한 질문이 올라오게 된다. 출생 이후 경험해온 여러 가지 상처와 트라우마는 청년기의 고민과 방황 위에 더 큰 문제와 아픔을 가중시킨다. 청년기가 되면 본격적인 사회화가 시작되지만, 단순한 사회화만으로는 청년들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 상처와 트라우마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이 중요한 시기를 단순한 사회화의 형식적, 기능적 교육으로 대처하게 될 때, 청년기의 실존적 위기는 물론이고 이후 중년기 위기 또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의 절망 앞에서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 변형화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청년기에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와 고통이 그때까지의 다양한 상처와 트라우마와 관련된 것이고, 그러한 상처와 트라우마는 의식이 아닌 무의식 층에 자리 잡고 있기에, 단순한 사회화로는 이러한 상처와 트라우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청년의 무의식에 들어있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대면, 직면, 통찰함으로써 그것을 의식의 표면 위로 떠올릴 필요가 있다. 종교심리학자 칼 융은 “무의식 대면 기법”을 통해 그리고 집단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원형과의 접촉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시도하였다. 이것은 어느 정도의 효과와 효용성이 있음을 정신의학자로서의 삶을 통해 보여주었다. 하지만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접근은 일반 종교심리학적 차원에 머물 수밖에 없다.

한편, 기독교교육학자 제임스 로더는 융의 이러한 접근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다 창의적, 능동적으로 전유함으로써, 기독교 변형화교육론을 대안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그는 “영의 논리”와 “변형의 논리”를 통해 삶의 궁

극적 의미와 목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을 통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용의 통찰과 로더의 변형의 논리를 통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청년기를 위한 기독교 변형화 교육의 가능성과 효율성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밀도 있게 성찰하며 실제 교육과 상담의 실천을 통해 입증해 보이게 되었다.

이번의 연구를 통해 다시 확인하게 된 것은, 청년기는 인생의 중심축이자 허브가 된다는 것이다. 출생 이후 영유아, 유치, 아동기 동안의 모든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들이 청년기의 형식적, 추상적 사고를 통해 해석 및 재해석되고 이후의 삶을 살아나가기 위한 기본 토대와 방향을 확정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청년기는 중요한 시기일 뿐 아니라 위기의 시기인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위기의 시기에 단순한 기능적 사회화를 넘어 실존적, 존재적, 영성적 차원에서의 변형화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변형화교육이 마이클 폴라니가 제시한 “한계적 조율성”의 역할을 함으로써 (Polanyi, 1969, 136-138). 사회화 교육의 의미, 목적,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화교육은 그것을 보완, 실현, 완성해나갈 때, 청년기를 위한 기독교교육이 가장 온전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강희천 (1991). **기독교교육사상**.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 김은주 (2018). 제임스 로더(James E. Loder)의 기독교교육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적용 : 중년기 생애의 재구성을 위한 접근. **기독교교육논총**, 56, 101-134.
- 박상진 (2014).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교회교육. **기독교교육논총**, 40, 77-110.
- 이규민 (2008). 제임스 로더(James E. Loder, Jr)의 생애와 기독교교육 사상. **기독교교육논총**, 17, 279-315.
- 이규민 (2015). 융의 종교심리학에 나타난 종교의 역할과 치유적 기능: 종교이해의 타당성 과 기독교교육적 함의를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43, 137-167.
- 이춘재 (1988). **청년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장휘숙 (2000).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 Berger, P. L, & Luckmann. T. (1966).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NY: Doubleday.
- Brown, M. (1965). *Ultimate concern: Tillich in dialogue*. London: SCM Press.
- Buber, M. (2004). **나와 너**. 표재명 역. 서울: 문예출판사. (원저 1937 출판)
- Erikson, E. H. (2014). **유년기와 사회**. 송제훈 역. 서울: 연암서가. (원저 1950 출판)
- Fowler, J. (1981). *Stage of faith: The psychology of human development and the quest for meaning*.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 Fowler, J. (1996). **변화하는 시대를 위한 기독교교육**. 박봉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원저 1991 출판)
- Fowler, J. (2002). **신앙의 발달단계**. 사미자 역.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원저 1981 출판)
- Fowler, J., & Loder, J. E. (1982). Conversations on stages of faith and the transforming moment. *Religious Education*. Mar 1. 133-148.
- Jung, C. G. (1958). *Psychology and religion*. New York: Pantheon.
- Jung, C. G. (1961). *Memories, dreams, reflections*. NY: Vintage Books.
- Jung, C. G. (1971). *Psychological types*. New York: Pantheon.
- Kegan, R. (1982). *The evolving self: Problem and process in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Kierkegaard, S. A. (2008). *The sickness unto death*. Virginia: A&D Publishing.
- Lee, K. M. (1995). Koinonia: A critical study of Lewis Sherrill's concept of koinonia and Jurgen Moltmann's social understanding of the Trinity as

- an attempt to provide a corrective to the problems of the Korean church and its educational minist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New Jersey.
- Levinson, D. J. (2003). **남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 김애순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원저 1978 출판)
- Loder, J. E. (1966). *Religious pathology and christian faith*.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 Loder, J. E. (1989). *The transforming moment*. Colorado Springs: Helmers & Howard Publishers.
- Loder, J. E. (1992). *The knight's move: The relational logic of the spirit in theology and science*. Colorado Springs: Helmers & Howard Publishers.
- Loder, J. E. (1992). 변화의 역동성(2). **연세대학교 연신원 목회자 하기 신학세미나 강의집**, 297-311.
- Loder, J. E. (1992). 성령과 인간 변화(1). **연세대학교 연신원 목회자 하기 신학세미나 강의집**, 277-296.
- Loder, J. E. (1998). *The logic of the spirit: Human development in theological perspective*. California : Jossey-Bass Inc.
- Loder, J. E. (2001). **종교 체험과 삶의 변환**. 김성민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원저 1989년 출판)
- Loder, J. E. (2006). **신학적 관점에서 본 인간 발달**. 유명복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원저 1998 출판)
- Loder, J. E. (2009). **성령의 관계적 논리와 기독교교육 인식론: 신학과 과학의 대화**. 이규민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원저 1992 출판)
- Loder, J. E. (2018). *Educational ministry in the logic of the spirit*. Eugene, OR: Cascade Books.
- Miller, P. H. (1983). *Theories of development psychology*. NY: W.H.Freeman and Company.
- Polanyi, M. (1969). *Knowing and being*.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chultz, D. (2009). **성장심리학**. 이해성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원저 1977 출판)
- Spitz, R. A. (1965). *The first year of life: A psychoanalytic study of normal and deviant development of object relation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Abstract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al Christian Education
for Young Adults: With a Focus on the Employment of
Jung's Unconscious Confrontation and Loder's
Transformational Theory**

Kyoomin Lee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Eunjoo Kim

Hansei University

The important developmental tasks of young adults are based on encounter and identity. These problems of encounter and identity are also connected to the instinct of longing for the "face" of primary caregivers, who acknowledge and affirm themselves as their cherished children. James Loder emphasizes that human "face pursuit instinct" later reaches "formal-operational stage" and leads to religious yearning for God as "the Eternal Face." This pursuit of "face" and "the Eternal Face" is an existential and ontological move to find out "Who am I?" through meaningful encounters. Religious psychologist Carl Jung also points out that scientific thinking has contributed to the liberation of humans from superstitious beliefs. But this has also led to the loss of the precious value of human spirit and the sense of unity with nature. Jung emphasizes that "symbolic play" should help learners and counselor face-to-face with their unconscious mind. By doing so, learners can overcome the wounds and scars of unconsciousness and mature toward the true self. James Loder is a scholar who critically introduced Jung's "unconscious confrontation" therapy to his educational theory. Beyond Jung's unconsciousness and "symbolic play," Loder proposed transformational

education for the learners to participate in meaningful changes through interaction between human spirit and the Holy Spirit. With many young adults wandering around in their existential voids, it is clear that functional and socializational education cannot overcome their problems and developmental crisis. This developmental crisis requires a foundation of identity and intimacy in the encounter with God, the "Eternal Fac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when Jung's "unconscious confrontation" and Loder's "transformation logic" are employed, transformational Christian education for the healthy self-identity and intimacy of young adults can be accomplished. This inquiry presents not only theoretical reflection, but also the reactions of young adults and actual feedback obtained through implementing transformational Christian education for young adults. Through all of these endeavors, this inquiry was completed by proving that "Transformational Christian Education for Young Adults" is an educational theory that can yield actual results and abound fruits.

(This enquiry was undertaken by the support of the research fund of PUTS 2020.)

《 **Keywords** 》

Young Adults, the Eternal Face, Carl Jung, Symbolic Play, Unconscious Confrontation, James Loder, Transformational Logic, Transformational Education

- 투고접수일 : 2020년 8월 27일
- 심사완료일 : 2020년 9월 29일
- 게재확정일 : 2020년 9월 29일